

# 화순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대상 수어교실

### 9월 3일 개강해 10월까지 입문반·기초반 나눠 운영

### “2016년 우리나라 공용어 공인...소통·화합 도모 계기”

화순군 수어통역센터(센터장 김훈)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어교실을 운영한다.

수어교실은 지역의 청각·언어장애인과 장애인 간 원만한 의사소통을 돕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수어교실

강의는 모두 열네 차례 진행된다. 강의는 입문반과 기초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7시에 각각 1시간씩 진행한다.

수어통역센터는 개강일 전까지 수강신청을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61-372-7800)를 통해서 하면 된다. 수



강신청 자격은 따로 없다. 김훈 화순군 수어통역센터장은 “수어교실이 2016년 우리나라 공용어로 공인된 수어가 널리 보급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덕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수어교실은 장애인 군민들이 청각·언어 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화순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군비 80%, 도비 20%)를 지원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무안경찰, 전남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MOU 체결** 무안경찰서(서장 조장섭)는 지난 28일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지원체계를 위해 전남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강승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고·접수시 현장조사동행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건조사시 과정에서 조력과 정보공유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 광주 남구, 장애인 활동 지원 25인승 차량 제작

광주 남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각종 체험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특화 차량을 제작한다.

남구는 27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특화차량 지원 사업’에 선정돼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25인승 중대형 승합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남구가 장애인 특화차량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25인승 장애인 특화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가 마련돼 있지 않아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데다 10년 이상 노후화한 차량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관내 등록 장애인 669명 가운데 중증 장애인이 310명이고, 이중에 지역사회재활사업 관리 대상

인 중증 장애인 및 의료기관 퇴원한 자로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 장애인이 각각 124명과 42명에 달해 차량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여건에서다. 장애인 특화 차량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9,900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차량 구입비 8,950만원을 지원하며, 남구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950만원 가량을 투입해 자동변속기 및 발판 등을 추가 구매할 방침이다.

신규 특화 차량 구입은 이르면 오는 12월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해당 차량은 중증 장애인 원예체험 및 나들이,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실시

### 치매어르신 인권 보호·존엄성 보장

광양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정희)는 치매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해진 치매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인지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는 치매어르신들에게 각종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이용지원, 서류발급, 물건구입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령, 치매정도, 경제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 정도 등을 고려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선정하고,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여 최종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후견인 자격은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 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후견 대상자와 후견인 자격을 희망하는 사람은 광양시 치매안심센터(☎061-797-412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희 보건소장은 “이번에 시행될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어르신들의 재산관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될 것이다”며 “도움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다문화가족에 행복과 추억을 선물하다”

### 신안군 인클로버재단

신안군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서울 소재)에서는 지난 24일 다문화가족 36세대를 대상으로 가족사진 무료 촬영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에서 후원하여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가족사진을 촬영 인화 후 액자를 제작 다문화가족에게 가족사진을 선물했다.

안좌면 여미나씨(베트남)는 잠시 한국에 오신 친정 부모님과 함께 가족사진에 추억을 담아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안 팔금면에 사시는 박영모씨는 다문화가족에게 200만원 상당



의 주방식기세트를 선물하여 다문화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문화가족이 가족사진에 담긴 행복과 추억으로 위기상황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가족사진이 가족구성원 간 결속을 강화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